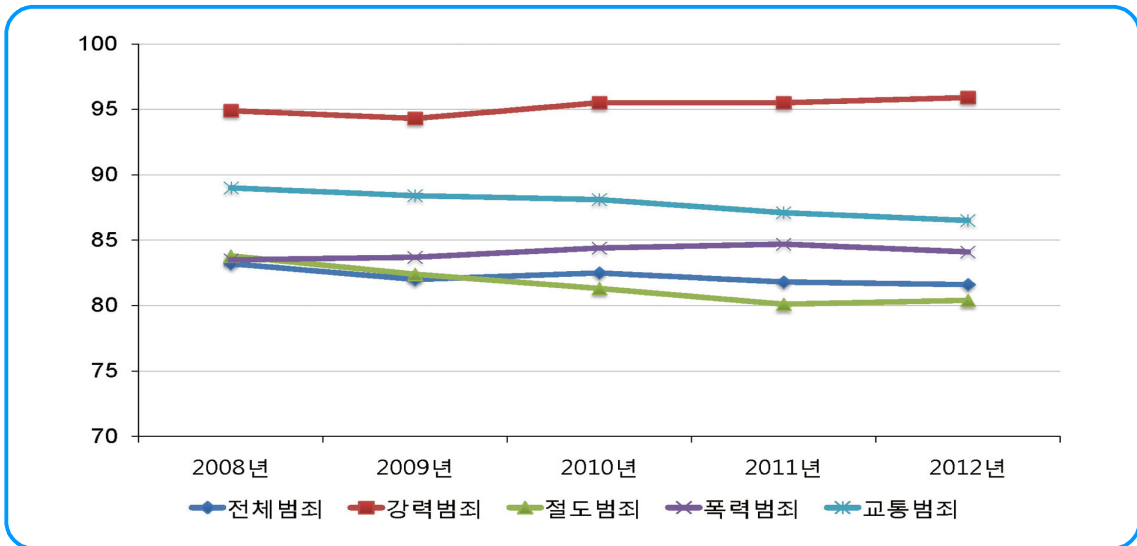


2. 범죄자 특성의 추세

가. 범죄자 성별 추세

〈표 7〉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자 성별 인원수 및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범죄유형	성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체범죄	남성	1,740,121	83.2	1,730,670	82.0	1,497,356	82.5	1,413,910	81.8	1,406,840	81.6
	여성	352,161	16.8	378,858	18.0	317,030	17.5	315,141	18.2	316,975	18.4
강력범죄	남성	21,204	94.9	24,126	94.3	23,918	95.5	23,871	95.5	22,819	95.9
	여성	1,133	5.1	1,449	5.7	1,116	4.5	1,117	4.5	970	4.1
절도범죄	남성	76,857	83.8	99,118	82.4	92,729	81.3	87,481	80.1	83,919	80.4
	여성	14,854	16.2	21,233	17.6	21,387	18.7	21,699	19.9	20,515	19.6
폭력범죄	남성	371,260	83.5	369,781	83.7	329,961	84.4	328,666	84.7	336,591	84.1
	여성	73,597	16.5	71,801	16.3	60,820	15.6	59,428	15.3	63,691	15.9
교통범죄	남성	701,515	89.0	569,204	88.4	533,196	88.1	454,356	87.1	443,054	86.5
	여성	86,481	11.0	74,751	11.6	72,289	11.9	67,204	12.9	69,022	13.5



〈그림 5〉 주요 범죄유형별 남성범죄자 비율 추이(2008년~2012년)

- 2012년 전체범죄자 중 남성범죄자는 81.6%, 여성범죄자는 18.4%임. 강력범죄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95.9%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절도범죄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19.6%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교통범죄의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반면에, 폭력범죄의 경우에 여성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절도범죄의 경우 2008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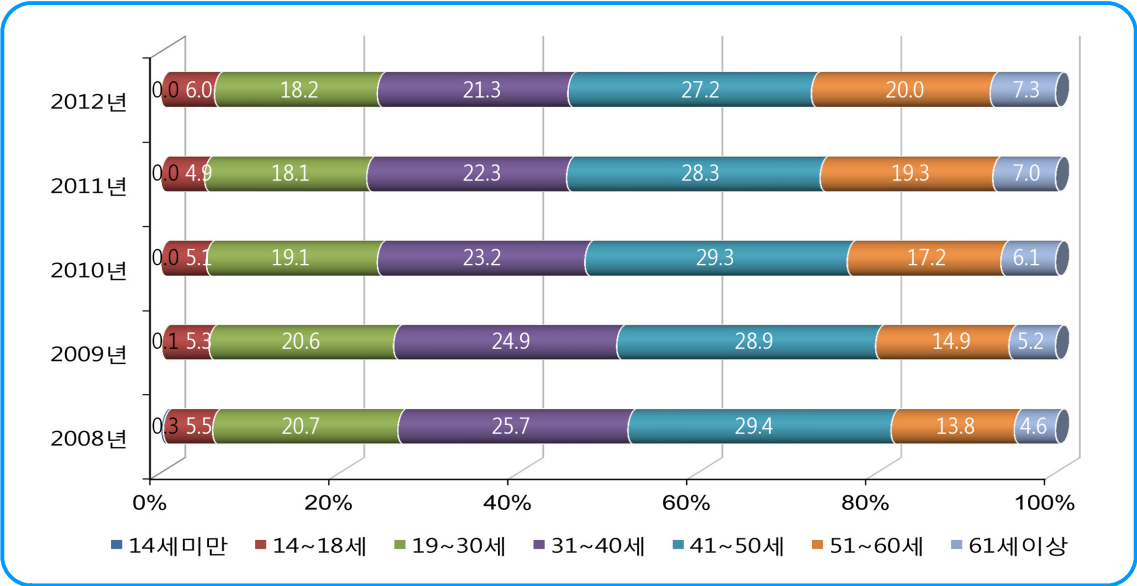
* 범죄자 인원수는 기초중지 및 성별불상자를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나. 범죄자 연령별 추세

〈표 8〉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자 연령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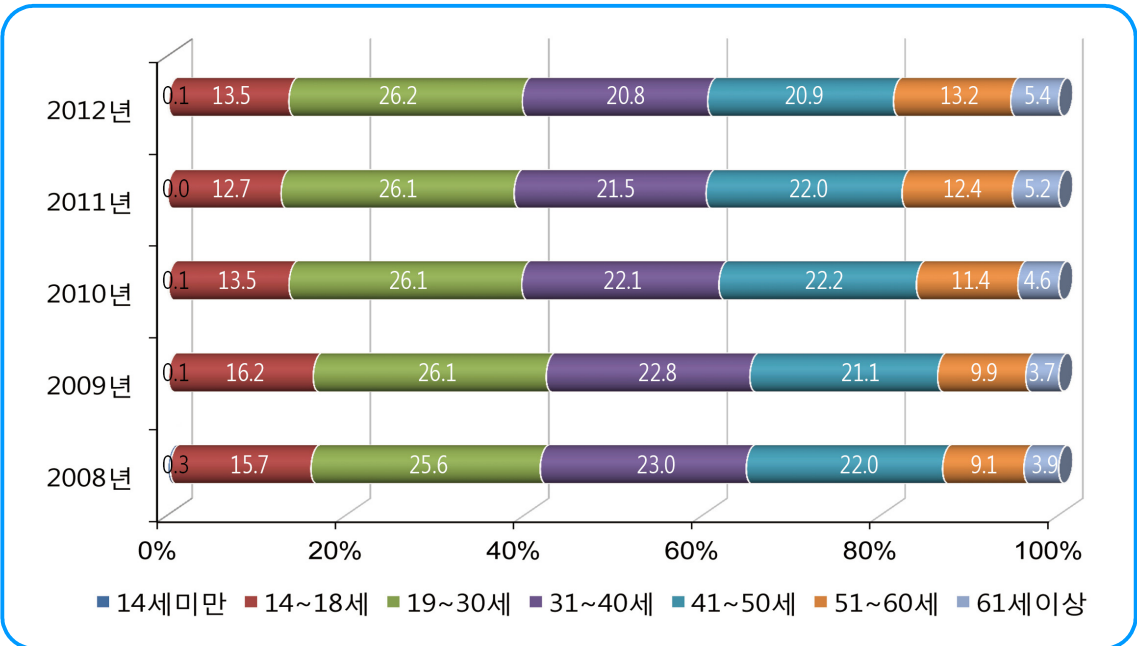
범죄유형	연령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체범죄	14세미만	5,417	0.3	2,516	0.1	496	0.0	229	0.0	654	0.0
	14~18세	113,937	5.5	112,338	5.3	92,518	5.1	84,889	4.9	103,878	6.0
	19~30세	431,349	20.7	434,057	20.6	345,729	19.1	313,329	18.1	313,062	18.2
	31~40세	536,804	25.7	526,020	24.9	420,322	23.2	384,848	22.3	367,318	21.3
	41~50세	614,582	29.4	610,240	28.9	531,353	29.3	489,424	28.3	468,728	27.2
	51~60세	288,895	13.8	314,437	14.9	312,258	17.2	334,533	19.3	344,604	20.0
	61세이상	97,000	4.6	109,711	5.2	111,453	6.1	121,771	7.0	125,012	7.3
강력범죄	14세미만	74	0.3	38	0.1	17	0.1	5	0.0	27	0.1
	14~18세	3,502	15.7	4,137	16.2	3,389	13.5	3,172	12.7	3,204	13.5
	19~30세	5,714	25.6	6,677	26.1	6,524	26.1	6,521	26.1	6,220	26.2
	31~40세	5,136	23.0	5,831	22.8	5,535	22.1	5,366	21.5	4,948	20.8
	41~50세	4,922	22.0	5,402	21.1	5,552	22.2	5,506	22.0	4,963	20.9
	51~60세	2,043	9.1	2,543	9.9	2,857	11.4	3,107	12.4	3,145	13.2
	61세이상	864	3.9	945	3.7	1,159	4.6	1,311	5.2	1,277	5.4
절도범죄	14세미만	978	1.1	504	0.4	196	0.2	63	0.1	276	0.3
	14~18세	34,528	37.7	42,542	35.3	36,551	32.0	32,337	29.6	36,358	34.8
	19~30세	17,266	18.8	25,186	20.9	24,321	21.3	23,675	21.7	22,056	21.1
	31~40세	12,933	14.1	17,475	14.5	16,338	14.3	15,743	14.4	13,121	12.6
	41~50세	14,347	15.6	18,693	15.5	18,762	16.4	17,572	16.1	14,483	13.9
	51~60세	7,557	8.2	10,676	8.9	11,920	10.4	12,977	11.9	11,946	11.4
	61세이상	3,778	4.1	5,261	4.4	6,023	5.3	6,810	6.2	6,173	5.9
폭력범죄	14세미만	586	0.1	267	0.1	133	0.0	63	0.0	202	0.1
	14~18세	29,310	6.6	29,592	6.7	24,241	6.2	23,491	6.1	32,853	8.2
	19~30세	95,639	21.5	95,218	21.6	83,327	21.3	80,158	20.7	82,938	20.7
	31~40세	104,119	23.4	101,079	22.9	85,607	21.9	81,522	21.0	80,719	20.2
	41~50세	132,195	29.7	128,882	29.2	112,459	28.8	107,687	27.7	105,045	26.2
	51~60세	61,616	13.9	65,073	14.7	63,764	16.3	71,300	18.4	73,984	18.5
	61세이상	19,913	4.5	21,421	4.9	21,225	5.4	23,869	6.2	24,475	6.1
교통범죄	14세미만	110	0.0	56	0.0	57	0.0	39	0.0	42	0.0
	14~18세	19,768	2.5	15,438	2.4	13,390	2.2	11,593	2.2	11,935	2.3
	19~30세	167,536	21.3	128,462	19.9	115,347	19.1	94,276	18.1	92,927	18.1
	31~40세	235,731	29.9	178,547	27.7	158,004	26.1	132,196	25.3	125,014	24.4
	41~50세	237,281	30.1	195,703	30.4	183,117	30.2	150,234	28.8	143,640	28.1
	51~60세	99,371	12.6	95,000	14.8	100,569	16.6	96,413	18.5	99,858	19.5
	61세이상	28,138	3.6	30,731	4.8	34,948	5.8	36,807	7.1	38,600	7.5

- 2012년 전체범죄자 중 41-50세의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1-40세 21.3%, 51-60세 20.0%, 19-30세 18.2% 등의 순이었음. 강력범죄는 19-30세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1-50세, 31-40세 등의 순임. 절도범죄는 14-18세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9-30세의 21.1%로 전체 절도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의해서 발생함. 폭력범죄는 41-50세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9-30세, 31-40세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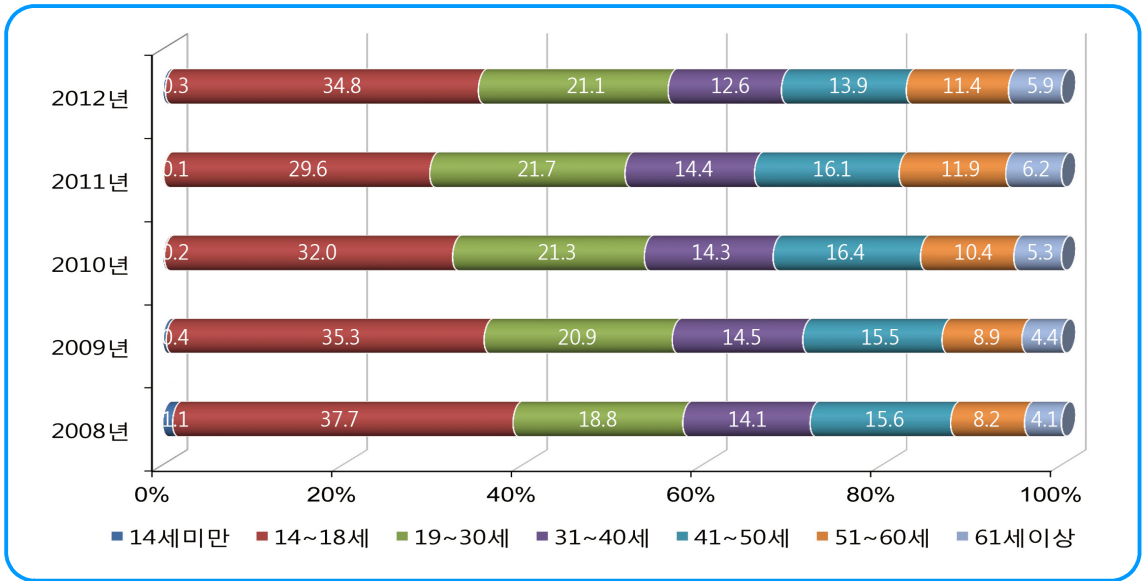
〈그림 6〉 전체 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 전체범죄의 지난 5년간 범죄자 연령별 추이를 보면, 31~40세와 41~50세 범죄자는 감소하고, 61세이상의 범죄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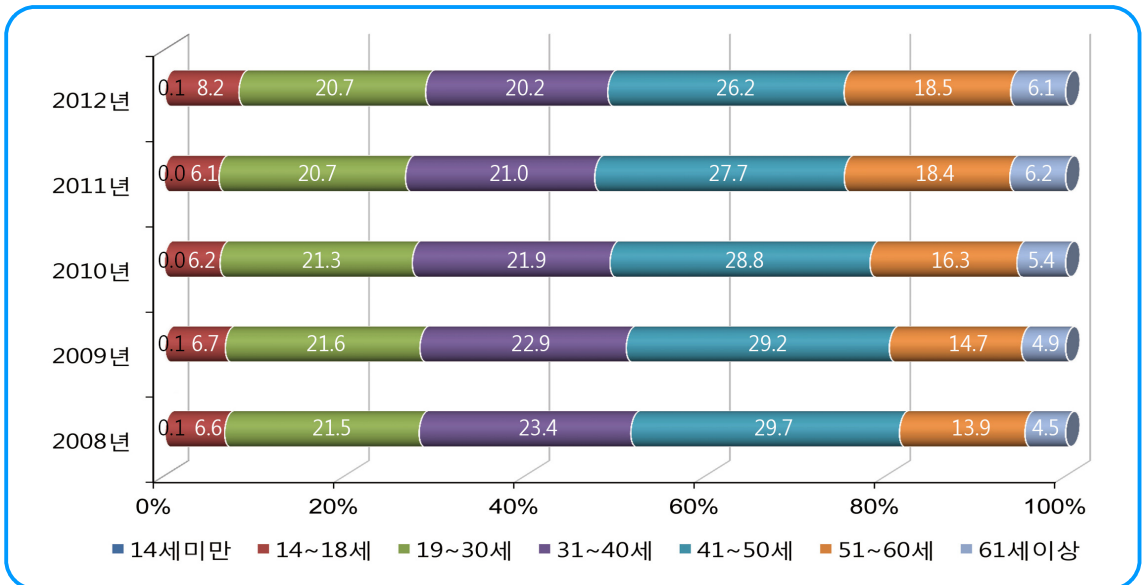
〈그림 7〉 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 강력범죄의 경우 지난 5년간 소년범죄자(19세미만)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2년 다소 증가하였으며, 51~60세, 61세이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8〉 절도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 절도범죄의 경우 2011년까지 소년범죄자(19세미만)의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41-50세의 비율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며, 51-60세와 61세 이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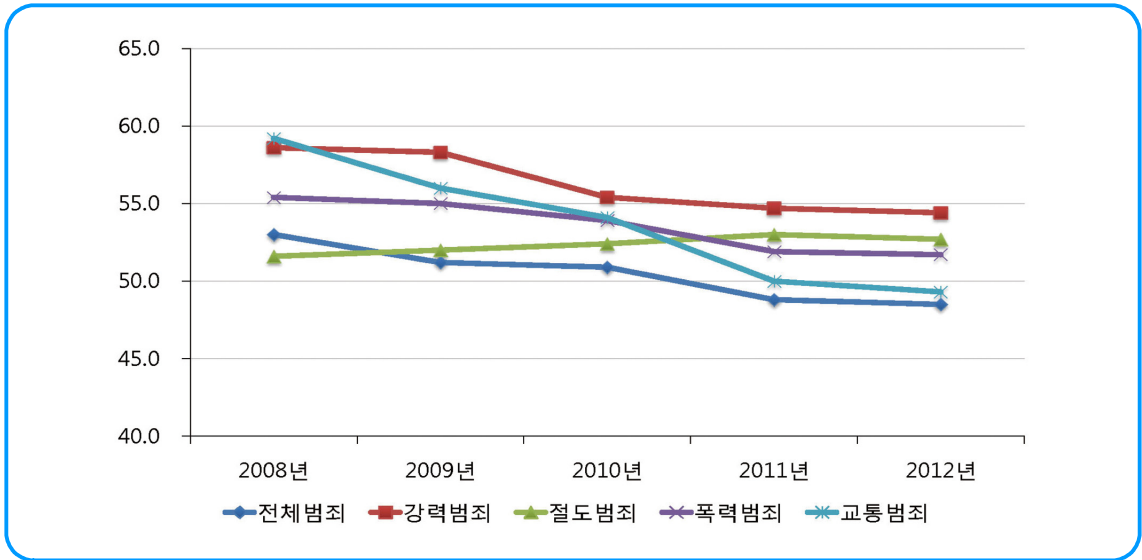
〈그림 9〉 폭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 폭력범죄의 경우 19-30세, 31-40세와 41-50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년범죄자(19세미만)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크게 증가하였음. 51-60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61세 이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다소 감소하였음

다. 범죄자 전과유무 및 횡수 추세

〈표 9〉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자 전과유무 추이(2008년~2012년)

범죄유형	전과유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체범죄	있음	1,108,091	53.0	1,079,086	51.2	923,599	50.9	843,623	48.8	836,856	48.5
	없음	608,120	29.1	598,144	28.4	486,718	26.8	450,249	26.0	431,824	25.1
	미상	376,071	18.0	432,298	20.5	404,069	22.3	435,179	25.2	455,135	26.4
강력범죄	있음	13,090	58.6	14,907	58.3	13,879	55.4	13,667	54.7	12,943	54.4
	없음	6,035	27.0	6,623	25.9	6,529	26.1	6,601	26.4	6,553	27.5
	미상	3,212	14.4	4,045	15.8	4,626	18.5	4,720	18.9	4,293	18.0
절도범죄	있음	47,311	51.6	62,543	52.0	59,842	52.4	57,836	53.0	55,074	52.7
	없음	39,758	43.4	50,608	42.1	45,971	40.3	43,609	39.9	42,335	40.5
	미상	4,642	5.1	7,200	6.0	8,303	7.3	7,735	7.1	7,025	6.7
폭력범죄	있음	246,571	55.4	242,658	55.0	210,704	53.9	201,517	51.9	207,015	51.7
	없음	110,782	24.9	104,751	23.7	89,276	22.8	85,079	21.9	90,204	22.5
	미상	87,504	19.7	94,173	21.3	90,801	23.2	101,498	26.2	103,063	25.7
교통범죄	있음	466,254	59.2	360,903	56.0	327,365	54.1	260,790	50.0	252,207	49.3
	없음	243,190	30.9	186,022	28.9	175,834	29.0	151,043	29.0	143,579	28.0
	미상	78,552	10.0	97,030	15.1	102,286	16.9	109,727	21.0	116,290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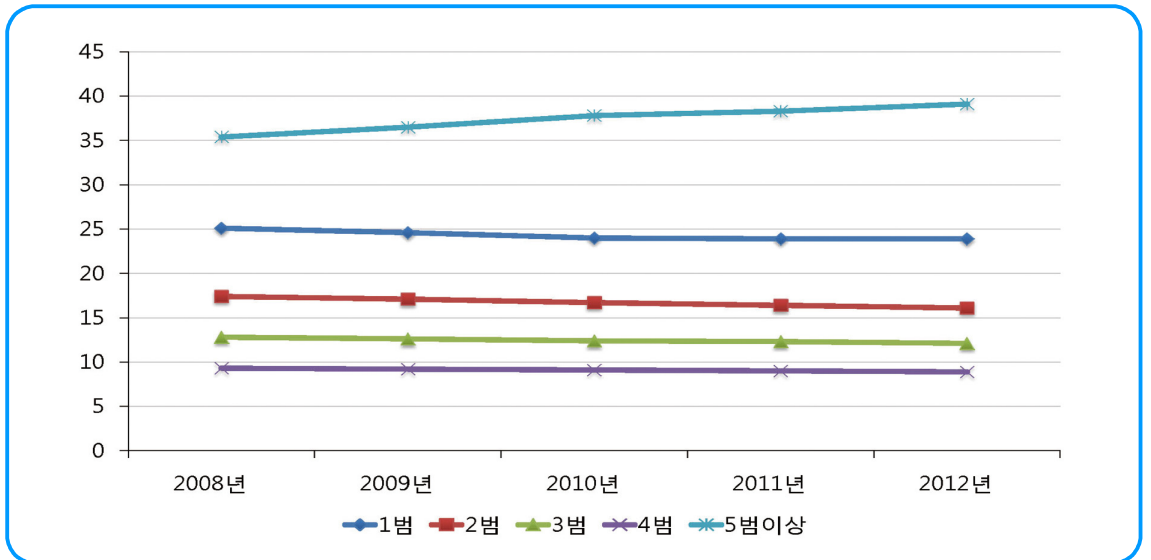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의 추이(2008년~2012년)

- 2012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 48.5%가 전과가 있었으며, 범죄유형별 전과자의 비율은 강력범죄 54.4%, 절도범죄 60.1%, 폭력범죄 46.5%, 교통범죄 32.0% 등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전과자 비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절도범죄의 전과자 비율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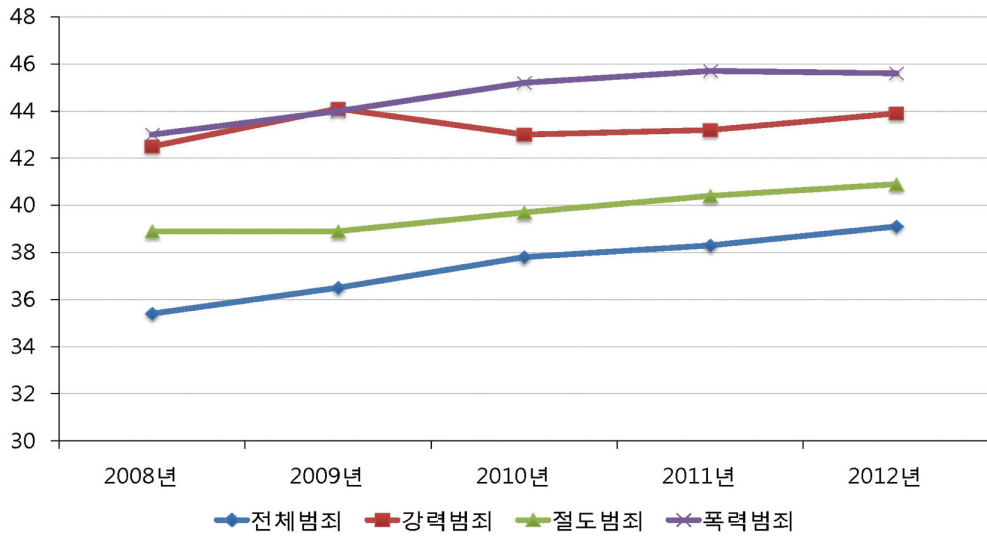
〈표 10〉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횟수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범죄유형	전과횟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체범죄	1범	277,661	25.1	265,828	24.6	222,039	24.0	201,993	23.9	199,632	23.9
	2범	193,089	17.4	184,479	17.1	154,088	16.7	138,640	16.4	134,595	16.1
	3범	141,636	12.8	135,571	12.6	114,247	12.4	103,810	12.3	100,928	12.1
	4범	103,286	9.3	99,773	9.2	83,776	9.1	75,723	9.0	74,295	8.9
	5범이상	392,418	35.4	393,435	36.5	349,449	37.8	323,457	38.3	327,406	39.1
강력범죄	1범	2,849	21.8	3,014	20.2	3,007	21.7	3,019	22.1	2,784	21.5
	2범	1,939	14.8	2,173	14.6	2,117	15.3	1,989	14.6	1,989	15.4
	3범	1,594	12.2	1,750	11.7	1,577	11.4	1,587	11.6	1,463	11.3
	4범	1,141	8.7	1,398	9.4	1,210	8.7	1,164	8.5	1,020	7.9
	5범이상	5,567	42.5	6,572	44.1	5,968	43.0	5,908	43.2	5,687	43.9
절도범죄	1범	11,755	24.8	15,581	24.9	14,642	24.5	14,141	24.5	13,445	24.4
	2범	7,454	15.8	9,896	15.8	9,295	15.5	8,973	15.5	8,449	15.3
	3범	5,550	11.7	7,368	11.8	6,899	11.5	6,568	11.4	6,198	11.3
	4범	4,170	8.8	5,360	8.6	5,269	8.8	4,781	8.3	4,448	8.1
	5범이상	18,382	38.9	24,338	38.9	23,737	39.7	23,373	40.4	22,534	40.9
폭력범죄	1범	51,393	20.8	49,508	20.4	41,697	19.8	39,452	19.6	41,985	20.3
	2범	37,262	15.1	36,284	15.0	31,006	14.7	28,903	14.3	29,288	14.1
	3범	29,413	11.9	28,209	11.6	24,410	11.6	23,167	11.5	23,197	11.2
	4범	22,476	9.1	21,881	9.0	18,431	8.7	17,832	8.8	18,156	8.8
	5범이상	106,027	43.0	106,776	44.0	95,160	45.2	92,163	45.7	94,389	45.6



〈그림 11〉 전체범죄 전과자의 전과횟수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2년)

- 2012년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과횟수를 알아본 결과, 23.9%가 전과 1범, 16.1%가 전과 2범, 12.1%가 전과 3범, 8.9%가 전과 4범, 39.1%가 전과 5범 이상으로 나타남. 전과 5범 이상자의 비율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43.9%, 절도범죄 40.9%, 폭력범죄 45.6% 등으로 주요 범죄유형 공히 전과 5범 이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림 12〉 주요 범죄유형의 전과 5범 이상자 비율 추이 (2008년~2012년)

- 지난 5년간 전과 5범 이상자의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는 물론이고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등 주요 범죄 유형에서 전과 5범 이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